13-01 [통권 511호] 2013. 01. 10.

지 속 가 능 성 장 을 위 한

VIP 리포트

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?

: 사무직, 연봉 2800만원, 정년 62세인 일자리

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
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://www.hri.co.kr로 주시기 바랍니다

현대경제연구원

발 행 인 : 김 주 현
편집주간 : 한 상 완
편집위원 : 주원, 장후석, 백흥기
발 행 처 : 현대경제연구원
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-7
Tel (02)2072-6231 Fax (02)2072-6249
Homepage. http://www.hri.co.kr
인쇄 :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(02)2636-0555

□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.
□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.
□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,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(02-2072-6231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■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?

: 사무직, 연봉 2800만원, 정년 62세인 일자리

Executive Summary ····· i

1. 일자리 인식 조사의 필요성 ····· 1

2.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분석 결과 ····· 2

3. 시사점 ····· 14

일자리 인식 조사의 필요성

일자리 수준에 대한 우려	- 국내 일자리 수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, 40-50대 주부의 파트타임 일자리 증가 등 전체적인 일자리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 - 따라서 국민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서 향후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

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모습 분석

구분	특징
현 일자리에 긍정적	**- 국민 10명 중 7명은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충분하다고 인식** · 30대(80.6%)의 자신감이 가장 충만하고, 50대 이상(59.2%)은 급격히 저하 **- 취업자 10명 중 7명은 현재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 인식** ·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국민의 약 68%가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
사무실에서 최소 연봉 2800만원을 받으면서 62세까지는 일하고 싶다	**- (근무형태) 가능한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** · 국민들의 사무직에 대한 선호(56.7%)가 가장 높은 가운데 서비스직(20.3%), 생산직(15.9%), 영업직(7.1%) 순으로 나타남 **- (임금) 최소한 연봉 약 2800만원 정도는 받고 싶다** · 연령별로는 40대가 월 평균 약 240만원으로 가장 높고, 남자 월 평균 242만원)가 여자(215만원)보다 희망 금액이 높은 편임 **- (일자리정년) 평균 약 62세까지 일하고 싶다** · 65세까지 일하고 싶다(34.1%)가 가장 많았고, 60세까지 (31.8%), 70세까지 (14.5%), 55세까지(10.3%), 70세 이상(9.2%) 순으로 나타남 **- (근무시간)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근무시간제가 필요하다** · 전체적으로 종일근무(62.6%)를 가장 선호하지만, **주부의 경우 오히려 반일 근무(44.2%)를 가장 선호**하는 등 계층별로 희망 근무시간이 상이함
임금보다 고용안정	**- 국민 10명 중 9명은 임금보다는 고용 안정을 중요하게 인식** · 국민 전체의 87.5%가 임금은 약간 낮아도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를 원함 · 또한, 90%이상은 일자리나누기(Job Sharing)에 긍정적

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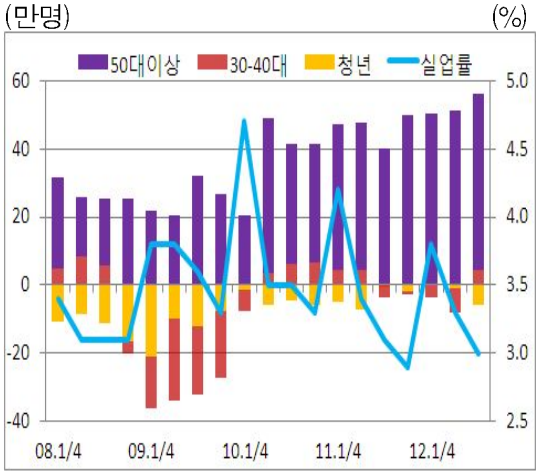
① 사무직에 치중된 국민들의 선호를 생산직이나 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군으로 전환
② 본격화되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
③ 상이한 특성이 보이는 주부나 청년 등 각 계층에 적합한 현미경 일자리정책 모색
④ 전체 국민들이 용인할 가능성이 높은 잡세어링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청년과 노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일자리 나누기 정책 마련

1. 일자리에 대한 인식 조사의 필요성

- 일자리 수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, 전체적인 일자리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됨
  - 국내 일자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, 많은 부분이 저부가가치 경쟁 부문인 50대 자영업자의 증가에 기인함
  - 또한 40-50대 주부들의 파트타임 증가 등 전체적인 일자리 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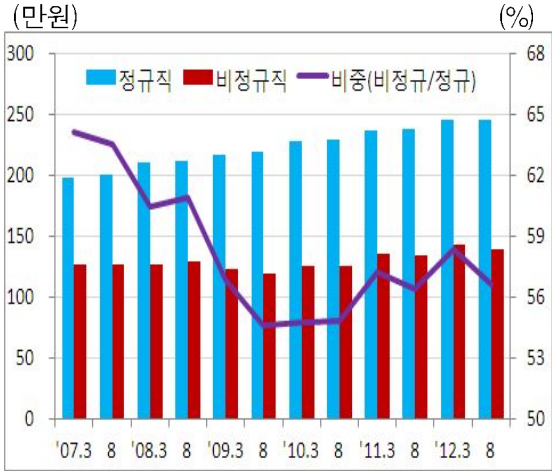
- 따라서 국민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서 향후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
  - 근무 시간, 근무 형태 등 일자리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세부 요인들을 찾아냄으로써 이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
  - 또한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여줌으로써 향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각 계층이나 세대별로 세분화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해야 함

< 연령별 신규취업자 및 실업률 >



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

< 정규직-비정규직 임금 격차 >



자료 : 통계청

2.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분석 결과

○ 조사 개요

-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음
  - 조사기간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일주일간이었고, 전화설문으로 표본 오차는 95%(±3.09)임

<조사 개요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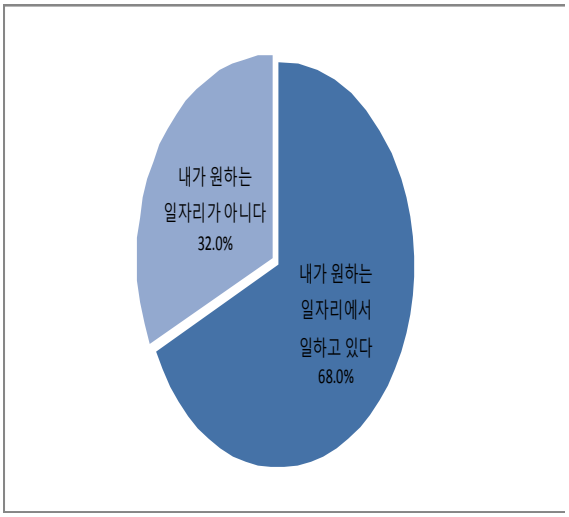
구분	내 용
조사 대상	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
조사 기간	2012.12.18 ~ 12.27(일주일 간)
조사 방법	전화 설문
표본 오차	95% ±3.09%

1) 원하는 일자리 근무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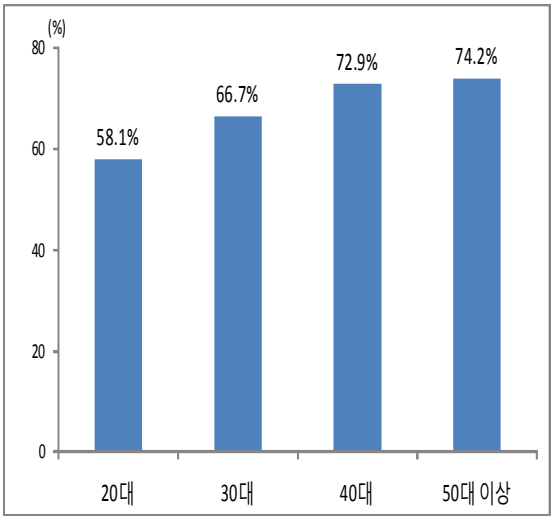
○ 10명중 7명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근무

-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다만,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중 32.0%는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

< 원하는 일자리 근무 여부 >



<원하는 일자리 근무(연령별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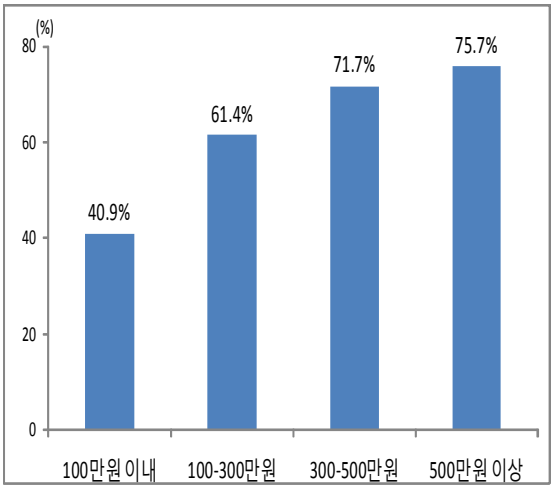


- **(연령별 비교)** 연령별로는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
  -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 20대는 58.1%인 반면, 30대는 66.7%, 40대는 72.9%, 50대 이상은 74.2%로 연령이 높을수록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비율이 좀 더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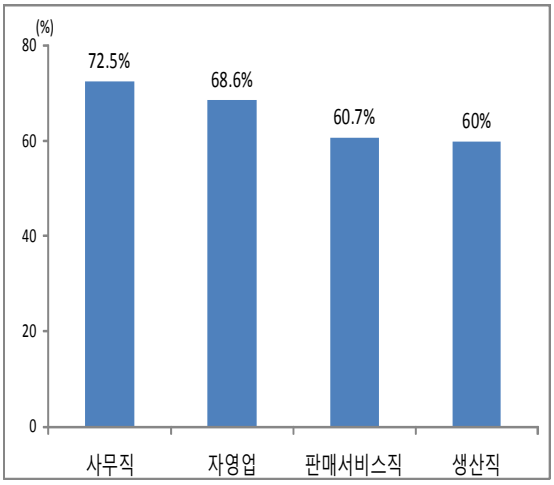
- **(소득별 비교)**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100만원 이내의 소득자의 경우 40.9%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, 500만원 이상 소득자는 75.7%로 많이 높은 편임

- **(직업별 비교)** 직업별로는 사무직의 경우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불만이 낮은 편인 반면, 생산직의 경우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
  - 사무직은 75.5%,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68.6%로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, 판매서비스직(60.7%), 생산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

<원하는 일자리 근무(소득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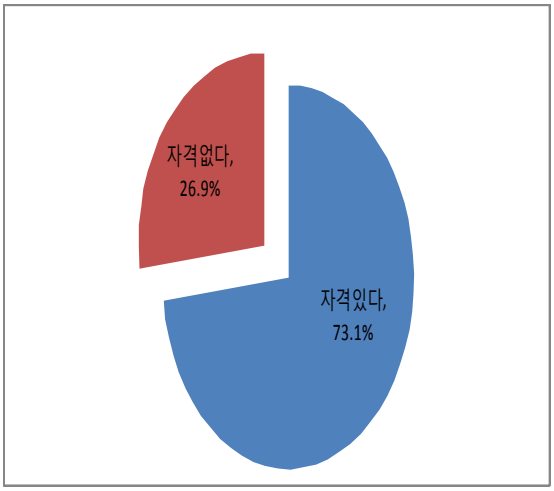
<원하는 일자리 근무(직업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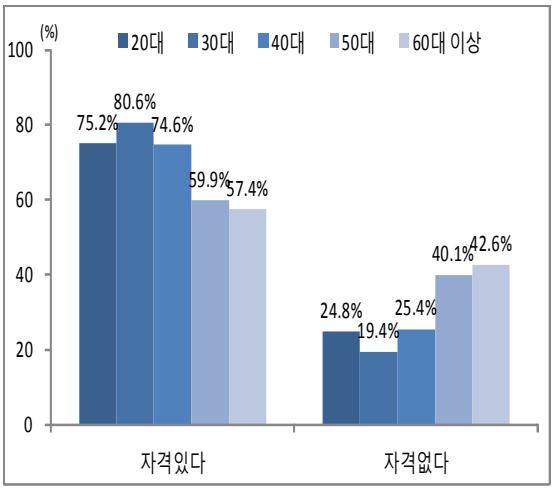
○ 10명 중 7명은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충분하다고 인식

-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본인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
  - 자신의 능력과 여건을 감안할 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3.1%나 되는 반면,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6.9%임

<좋은 일자리 일할 수 있는 자격>



<좋은 일자리 일할 수 있는 자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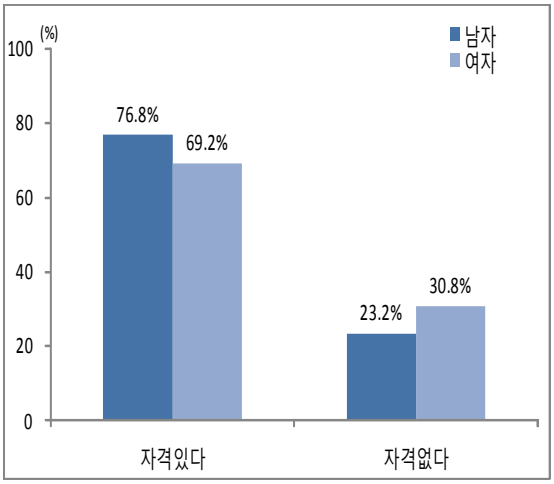


- **(연령별 비교)** 연령별로는 3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자신감이 가장 충만한 것으로 판단됨
  -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응답의 경우는 20대 75.2%인 반면, 30대 80.6%, 40대 74.6%로 대체로 높은 비율을 보임, 연령이 높을수록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비율이 좀 더 낮음
  - 다만, 50대는 59.9%, 60대 이상은 57.4%로 50대 이상의 경우 60% 이하로 급격히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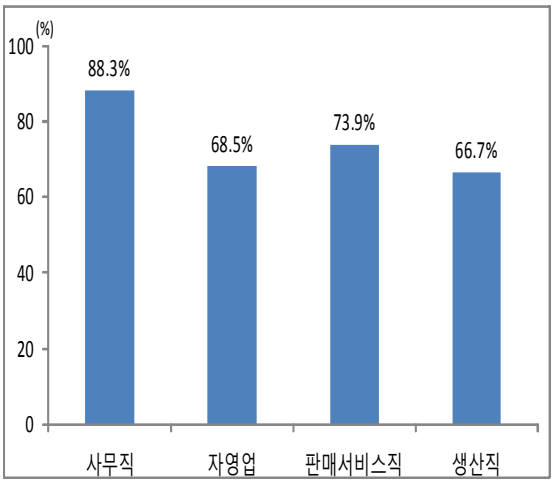
- **(성별 비교)**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
  - 남자의 경우 76.8%로 높은 편이고, 여자의 경우 69.2%로 상대적으로 낮아 남자에 비해 자신감이 부족한 편임

- **(직업별 비교)** 사무직 종사자의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
  - 사무직의 경우 88.3%로 매우 높은 반면, 자영업자(68.5%)나 생산직 종사자(66.7%)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

<좋은 일자리 일할 수 있는 자격>



<좋은 일자리 일할 수 있는 자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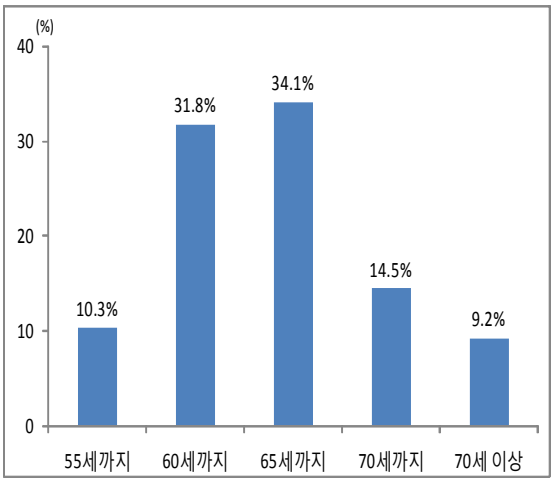


2) 국민의 원하는 일자리의 세부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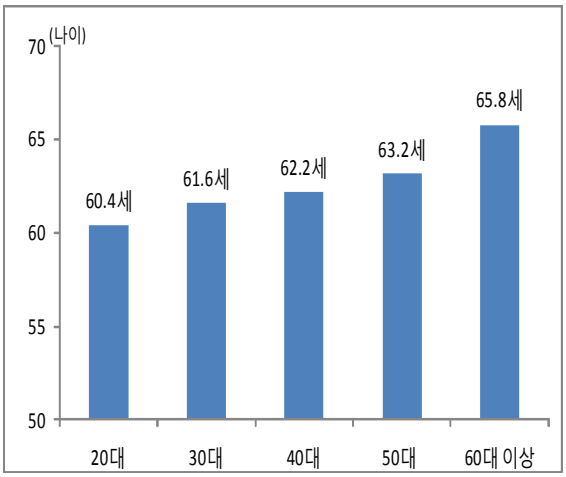
○ 평균 62세까지는 일할 수 있어야

-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 약 62세까지 일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남
  -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65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34.1%로 가장 많았고, 그 뒤로 60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31.8%임
  - 반면, 55세까지만 일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10.3%나 되었고, 70세까지 14.5%, 70세 이상 일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9.2%나 됨
  - 연령별로 살펴보면, 20대의 경우 평균 60.4세까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반면, 30대 61.6세, 40대 62.2세, 50대 63.2세, 60대 이상은 65.8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남

<언제까지 일하고 싶나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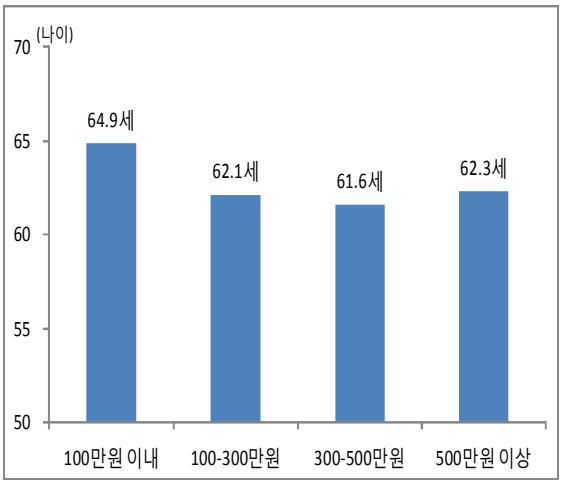
<언제까지 일하고 싶나(연령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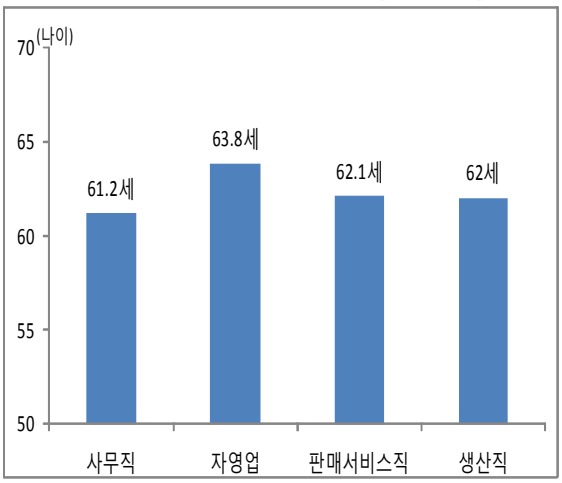
- **(소득별 비교)** 100만원 이하의 경우가 64.9세로 다른 소득자에 비해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함
  - 반면, 100-300만원은 62.1세, 300-500만원은 61.6세, 500만원 이상 62.3세임

- **(직업별 비교)** 사무직이 가장 짧고 자영업자는 가장 길게 일하고 싶어함
  · 사무직은 61.2세, 판매서비스직 62.1세, 생산직은 62세인 반면, 자영업자들은 63.8세까지 일하는 것을 원함

<언제까지 일하고 싶나(소득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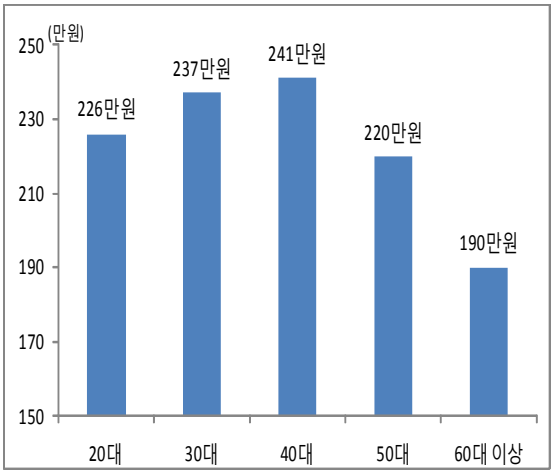
<언제까지 일하고 싶나(직업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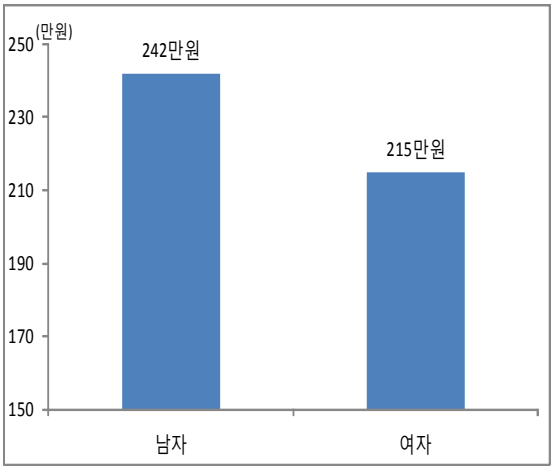
○ 최소한 연봉 2800만원은 받아야

- 우리나라 국민들은 월 평균 약 230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,800만원 정도 받기를 원함
  · 연령별로 살펴보면, 40대의 경우 월 평균 241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반면, 20대 226만원, 30대 237만원, 50대 220만원, 60대 이상은 190만원 정도를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남
  · 성별로 살펴보면, 남자(242만원)가 여자(215만원)보다 상대적으로 희망 금액이 큼

<월 평균 최소 희망 금액(연령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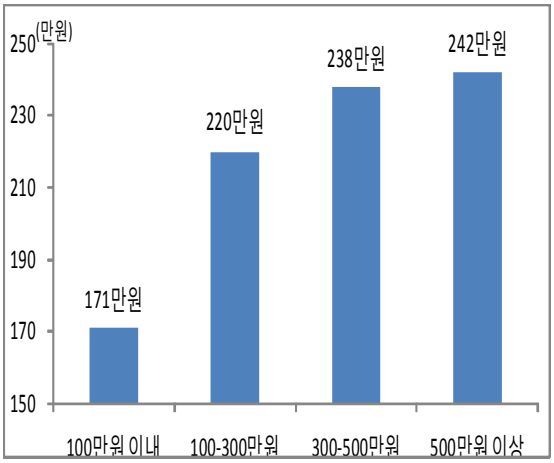
<월 평균 최소 희망 금액(성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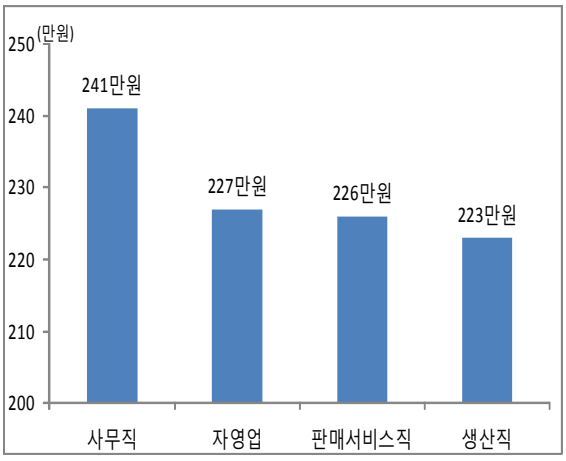
- **(소득별 비교)** 100만원 이하의 경우 171만원으로 다른 소득자에 비해 가장 적은 액수를 희망함
  - 반면, 100-300만원은 220만원, 300-500만원은 238만원, 500만원 이상 242만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좀더 원하는 금액이 높게 나타남

- **(직업별 비교)** 사무직이 가장 많은, 생산직 종사자가 가장 적은 금액을 원함
  - 사무직은 241만원, 자영업자들은 227만원, 판매서비스직 226만원인 반면, 생산직은 223만원을 원함

<월 평균 최소 희망 금액(소득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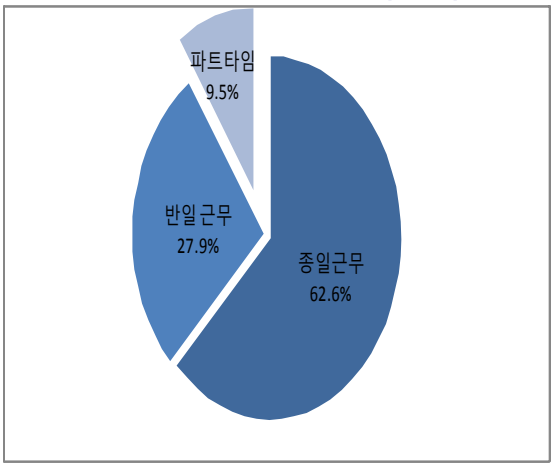
<월 평균 최소 희망 금액(직업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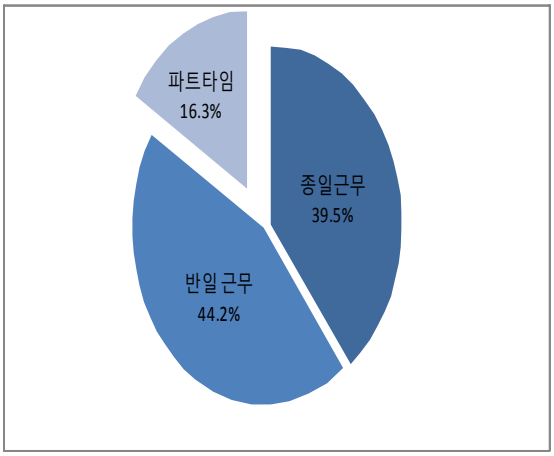
○ 희망 근무 시간 형태는 계층별로 차별적

-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근무 시간 형태는 종일근무이지만, 계층별로 각자 원하는 형태는 약간씩 차별화됨
  · 일반적으로 종일근무 62.6%, 반일 근무 27.9%, 파트타임 9.5%로 나타남
  · 반면, 주부의 경우 다른 계층과 달리 반일근무가 44.2%로 종일 근무 39.5%보다 높게 나타났으며, 파트타임도 16.3%로 나타남

<희망 근무 시간 형태(전체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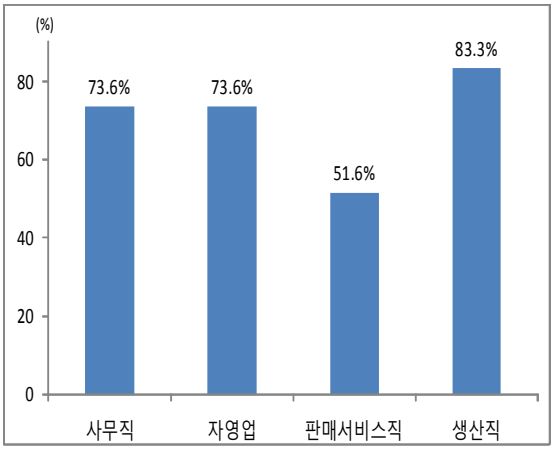
<희망 근무 시간 형태(주부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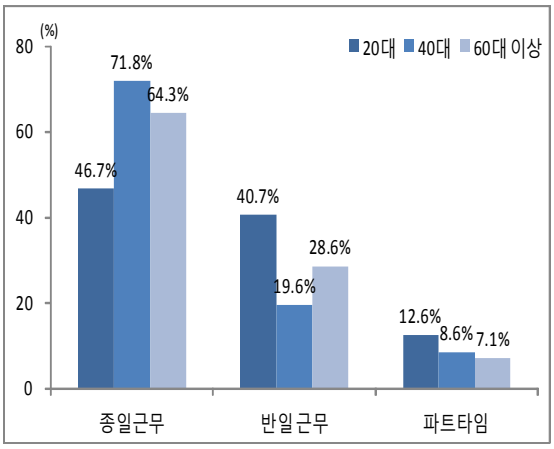
- **(직업별 비교)** 종일 근무를 원하는 비율을 살펴보면, 판매서비스직은 가장 낮고, 생산직이 가장 높음
  · 사무직과 자영업은 73.6% 정도인데, 판매서비스직은 51.6%에 불과한 반면, 생산직은 83.3%가 종일 근무를 원함

- **(연령별 비교)** 20대는 종일 근무와 반일 근무가 비슷한 반면, 40대는 종일 근무 형태를 월등하게 많이 원함
  · 20대는 종일근무 45.7%, 반일근무 40.7%, 파트타임 12.6%인 반면, 40대의 경우 종일근무 71.8%, 반일근무 19.5%, 파트타임 8.6%임

<종일 근무 원하는 비율(직업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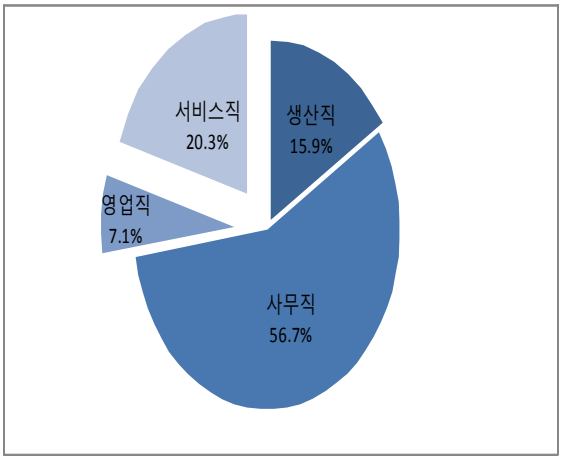
<희망 근무 시간 형태(연령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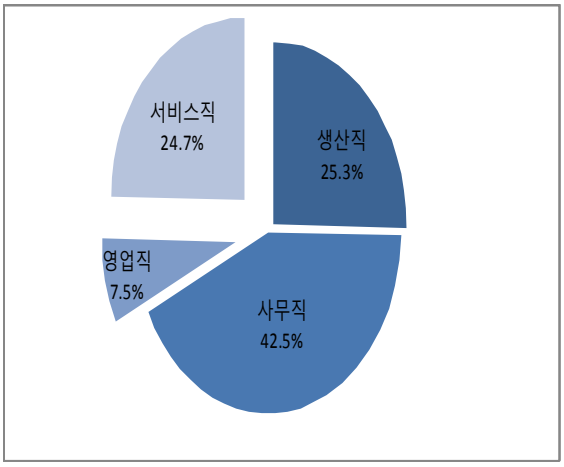
○ 사무직을 가장 많이 희망

-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근무 형태는 사무직으로 나타남
  - 일반적으로 사무직 56.7%, 서비스직 20.3%, 생산직 15.9%, 영업직 7.1%로 나타남
  - 반면, 주부의 경우 다른 계층과 달리 사무직 42.5%, 생산직 25.3%, 서비스직 24.7%, 영업직 7.5% 순서로 나타남

<희망 근무 형태(전체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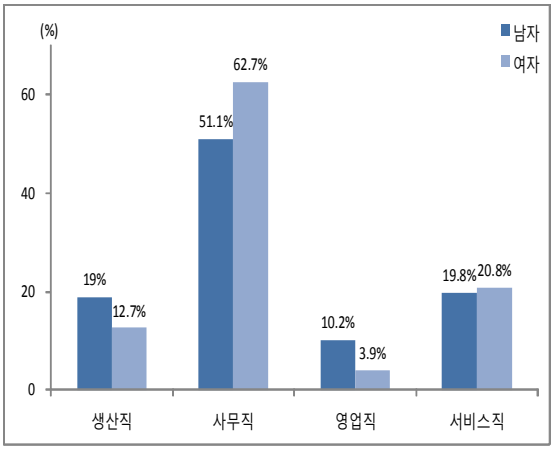
<희망 근무 형태(주부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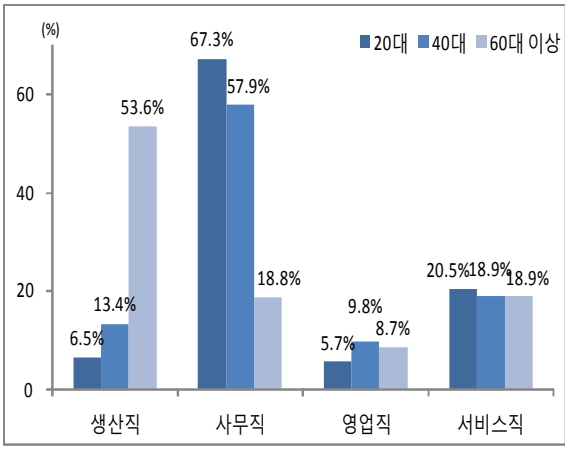
- **(성별 비교)** 여자가 남자보다 사무직을 좀더 희망함
  · 남자는 사무직 51.1%, 생산직 19.0%, 서비스직 19.8%, 영업직 10.2%인 반면, 여자는 사무직 62.7%, 생산직 12.7%, 서비스직 20.8%, 영업직 3.9%임

- **(연령별 비교)** 20대와 40대는 사무직을, 60대 이상은 생산직을 좀 더 희망함
  · 20대의 경우 사무직 67.3%, 생산직 6.5%, 서비스직 20.5%, 영업직 5.7%인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사무직 18.8%, 생산직 53.6%, 서비스직 18.9%, 영업직 8.7%임

<종일 근무 원하는 비율(성별)>



<희망 근무 시간 형태(연령별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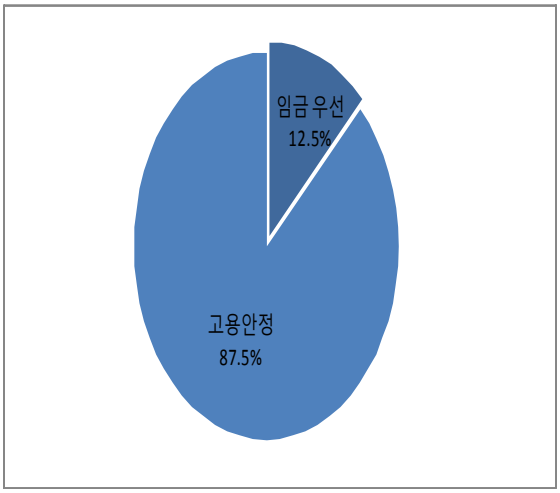


3)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종합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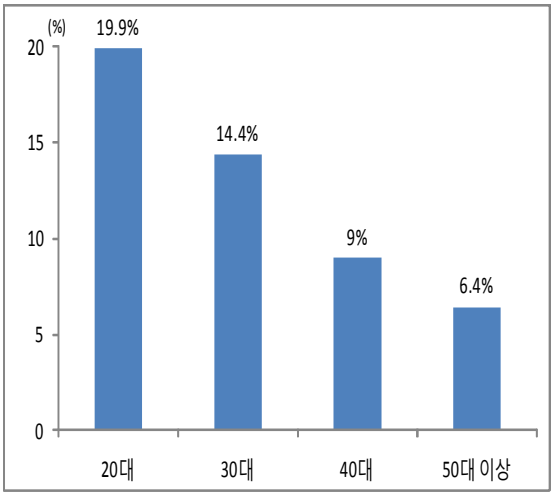
○ 10명 중 9명이 임금보다는 고용 안정을 우선

-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보다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일자리임
  · 임금은 약간 낮아도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이 전체의 87.5%인 반면, 고용은 약간 불안해도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은 12.5%에 불과함

<원하는 일자리의 모습>



<임금이 우선인 응답자 비율(연령별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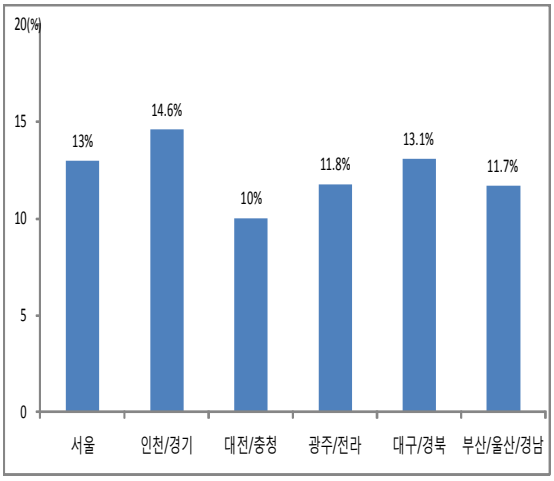


- **(연령별 비교)** 연령별로 임금을 좀더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,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
  - 임금을 좀더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비율을 보면, 20대가 19.9%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
  - 30대 14.4%, 40대 9%, 50대 이상은 6.4%로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보다는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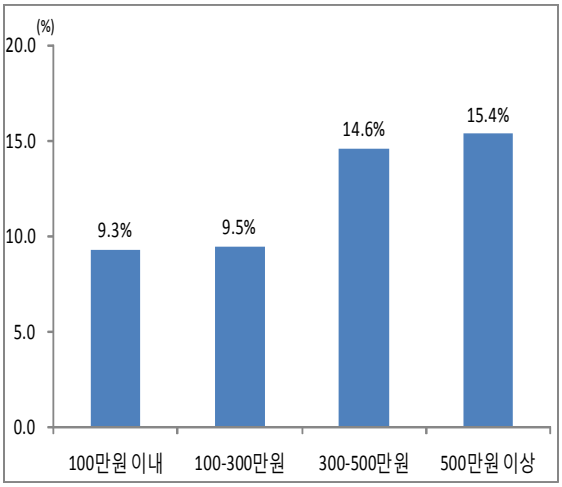
- **(지역별 비교)** 지역별로 임금을 좀더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, 인천 및 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
  - 인천/경기(14.6%), 대구/경북(13.1%), 서울(13.0%)로 상대적으로 높음
  - 반면, 대전/충청(10.0%)이 가장 낮고, 부산/울산/경남(11.7%), 광주/전라(11.8%)로 상대적으로 낮음

- **(소득별 비교)** 소득별로 살펴보면, 300만원 이하의 경우가 300만원 이상의 경우보다 고용 안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

<임금이 우선인 응답자 비율(지역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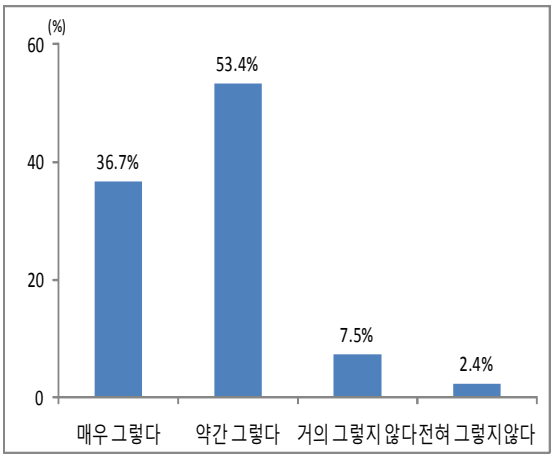
<임금이 우선인 응답자 비율(소득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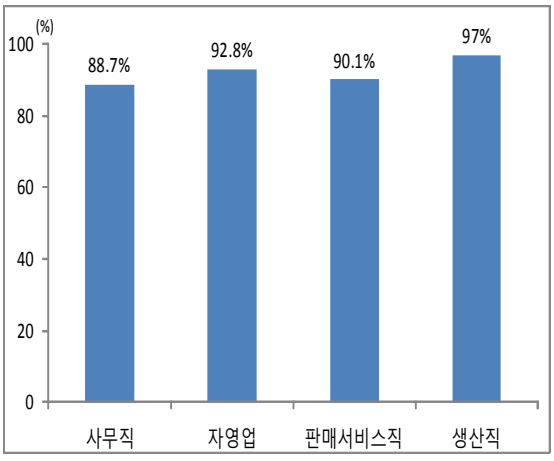
○ 10명 중 9명은 잡세어링(Job Sharing)에 긍정적

- 우리나라 국민들의 90.1%는 잡세어링에 긍정적임
  - 잡세어링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매우 그렇다(36.7%), 약간 그렇다(53.4%)가 긍정적인 반면, 부정적인 의견인 거의 그렇지 않다(7.5%), 전혀 그렇지 않다(2.4%)는 10%에 불과함
  -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 88.7%, 생산직 97%, 판매서비스직 90.1%임

<잡세어링의 필요성(전체)>



<잡세어링 긍정 비율(직업별)>



3. 시사점

○ 첫째, 사무직에 치중하는 국민들의 선호를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으로 인식 전환 필요

- 사무직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직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으로의 국민 인식 전환이 요구됨
  - 안락함을 대변하는 사무직에만 너무 많은 국민이 치중할 경우 산업의 근간이 되는 생산직 등의 일자리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, 또한 사무직에 대한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상존함
  - 따라서 범국민 차원에서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에 대한 선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, 국민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함

○ 둘째, 본격화되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

- 현행 정년은 본격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함
  -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
  - 이를 위해 기업의 입장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함

○ 셋째, 상이한 특성이 보이는 주부나 청년 등 각 계층에 적합한 현미경 일자리 정책 모색

- 주부나 20대, 60대 이상 등 각 세대 및 계층별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, 각각의 특성에 맞는 현미경일자리 정책이 필요함
  - 단순하게 취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종일근무의 정규직을 늘리려는 단

편적인 일자리 대책보다, 각 계층의 특성에 맞게 일자리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

· 예를 들어 반일근무제를 선호하는 주부를 위한 반일근무제 활성화 등의 대책 등 각 계층을 세분화하여 일자리 대책을 만드는 현미경정책이 요구

○ 넷째, 전체 국민들이 용인할 가능성이 높은 잡세어링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청년과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 마련

- 많은 국민들이 현재 잡세어링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, 이를 일자리 창출 정책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함

· 전체 국민의 90% 이상이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시하고 있으므로, 현재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

·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은 현행대로 지속하되,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더불어 나타날 것임 HRI

장후석 연구위원 (chahus@hri.co.kr, 02-2072-6234)

HRI 經濟 指標

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

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

구 분			2011		2012					2013
			4/4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(E)	연간(E)
국민계정	경제성장률(%)		3.3	3.6	2.8	2.3	1.6	—	2.2	3.1
	민간소비(%)		1.1	2.3	1.6	1.1	1.5	—	1.6	2.5
	건설투자(%)		-2.1	-5.0	1.5	-2.1	-0.1	—	-0.4	2.2
	설비투자(%)		-3.3	3.7	8.6	-3.5	-6.0	—	-0.7	4.8
대외거래	경상수지(억 $)		115	265	26	112	147	—	390	285
	통관기준	무역수지(억 $)	92	308	13	97	75	101	302	277
		수출(억 $) 증감률(%)	1,404 (9.0)	5,552 (19.0)	1,349 (3.0)	1,402 (-1.7)	1,331 (-5.7)	1,400 (-0.3)	5,482 (-1.3)	— (5.6)
		수입(억 $) 증감률(%)	1,313 (13.4)	5,244 (23.3)	1,339 (7.8)	1,305 (-2.8)	1,256 (-6.9)	1,299 (-1.0)	5,195 (-0.9)	— (6.4)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		4.0	4.0	3.0	2.4	1.6	1.7	2.2	2.5
실업률(%)			2.9	3.4	3.8	3.3	3.0	2.8	3.2	3.3
국고채금리(3년, 평균, %)			3.4	3.6	3.5	3.4	2.9	2.8	3.1	—
원/달러 환율(평균, 원)			1,144	1,108	1,131	1,152	1,133	1,090	1,127	1,060

주: E(Expectation)는 전망치.